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 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**2014년 3월 24일(월) 석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문의: 창의산업정책과 조영신 과장(044-203-4360), 김태희 사무관(044-203-4365)
산업기술개발과 천영길 과장(044-203-4520), 오종희 사무관(044-203-4523)
최정식 사무관(044-203-4524)
산업기술시장과 윤성혁 과장(044-203-4530), 강규형 사무관(044-203-4531)


## • 산업엔진 프로젝트, 추진단 구성 등 4월부터 본격추진
## • 국내기업-외국계대학/R&D센터 전용 R&D 프로그램 신설

### - '제 3차 창의산업정책 자문회의'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는 윤상직 장관 주재로 3월 24일(월), 「제3차 창의산업 정책자문회의」를 개최하였음

* 창의산업 정책자문단: 산업부문의 창의·혁신을 위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, 창업·벤처, 창의산업, 산업융합, 경영혁신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산·학·연 각계 인물로 구성('13.7.24)

□ 금번 3차 회의는 그동안 산업부문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서 민간의 이해와 소통을 통한 **민간주도의 협력을 강화**한다는 차원에서 개최되었고, 이와 관련된 4개의 안건*이 논의되었음

* ① 산업부문 창조경제 성과 평가 및 향후 계획, ②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 계획, ③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, ④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

① 먼저, 2013년 산업부가 추진한 창조경제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, 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음



**< 산업부문 창조경제 주요정책 추진내용 >**

| 정책 방향 | 추진전략별 향후 계획 |
|---|---|
| ①미래 성장동력 창출 | •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<br>- 미래부와 공동 또는 단독 추진 과제별 민간 중심 추진단 및 포럼 구성<br>- 기술개발, 사업화, 국제협력, 장비개발 등을 통한 구체적 이행<br>• 글로벌전문기업 육성<br>- 금년 중 후보기업 200개사 확대·지원<br>- 4대 지원센터(전략·인력·금융·마케팅)를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<br>• 두뇌전문기업 육성<br>- 엔지니어링, 디자인, 임베디드 SW, 시스템반도체 등 유망 두뇌전문기업을 '18년까지 300개 육성<br>- 기업수요를 반영한 EDRC(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센터) 신설, 분야별 특성화 대학(원) 확대를 통해 고급인력 양성<br>• 시장 선도형 유망 200대 핵심소재부품개발 본격 추진<br>- 중소·중견기업이 주관하는 「전략적 핵심소재」, 「SW 융합형 부품」 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 집중 지원 |
| ②창의·융합형 新시장 창출 | • IC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 시장 지속 확대<br>- 에너지저장장치(ESS), 지능형 수요관리(DR) 등 에너지 수요관리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거래시장 개설<br>- 민관 TF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규제를 발굴·개선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촉진<br>• 국민생활 4대분야(안전, 건강, 편리, 문화) 융합 비즈니스 모델 지속 발굴<br>• 생활산업 고도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<br>- IT·디자인·콘텐츠·소재 등과의 융합을 통한 고도화 추진<br>•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 구축·활용<br>- 10대 우수 BM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우수 BM 발굴·지원<br>- 데쓰밸리 및 초기성장기 자금문제 해소를 위한 '기술금융 활성화 방안' 마련 |
| ③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 | • 새정부 지역발전정책 본격 추진<br>- 시·도별 5대 주력 및 3대 협력 산업 선정·육성<br>• 산업단지의 재창조 추진기반 마련<br>- 리모델링 대상 노후산단 선정 및 혁신역량 강화 추진<br>• 지역규제 해소를 통한 창업 활성화<br>- 지자체 조례·규칙·행정관행 등 지역의 잔존규제와 중소·중견기업의 풀뿌리형 애로 적극 해소 |

② 기 발표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추진방안을 담은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함

○ 산업부는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**3월 중 추진단장을 공모***하고 **4월 중으로 프로젝트별 추진단을 구성**할 계획

* 전략기획단, KEIT, KETEP, KIAT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

| 구분 | 공모 분야 | 시기 |
|---|---|---|
| 1차 공모 (9개) | ①국민안전·건강로봇 추진단, ②해양플랜트 추진단, ③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추진단, ④첨단소재가공시스템 추진단, ⑤가상훈련 시스템 추진단, ⑥생체모사 디바이스 추진단, ⑦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추진단, ⑧직류 송배전 시스템 추진단, ⑨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추진단 | 3.20(목)~ 3.26.(수) |
| 2차 공모 (5개) | ①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추진단, ②자율주행 자동차 추진단, ③첨단 미래소재 추진단, ④지능형 반도체 추진단, ⑤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추진단 | 3.24(월)~ 3.28(금) |

- 특히, 미래부 미래성장동력과 공통 분야로서 **산업부와 미래부 합동 주관 프로젝트*는 공동 추진체계를 구성**하여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

*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, 자율주행자동차, 개인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, 탄소소재·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

○ 新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엔진 관련 **기술개발과 더불어 국제공동연구, 기반구축, 기술금융,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**해 나갈 계획

-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대형융합과제로서 **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 심사**를 거쳐 추진하되, 투입예산규모,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**일부 프로젝트는 기존 기술개발사업을 활용**하여 추진하고

- 산업엔진 프로젝트 R&D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한 **R&D 평가·관리 개선방안도 마련**할 계획



- 금년도 **국제공동연구가 우선 필요한 과제(5개)에 대해** 정부간 협력 회의* 등 주요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**기술선진국을 대상으로 과제를 제안하고 공동기획을 추진**하고, 필요시 미국, EU, 일본 등 주요국 주한공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도 추진할 계획

* 한-불 산업협력위(5월), 한-이스라엘 컨퍼런스(7월), 한-영 과학기술혁신 파트너쉽(11월) 등

- 산업엔진 추진에 필요한 연구장비 구축을 위해, **인프라 사업을 기획**하고 2015년부터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

③ **국내 중소기업의 R&D 생산성을 높이고, 개방형 혁신을 유도**하기 위한 **국제공동 연구 발전방안**도 논의함

○ 그동안, 우리나라는 연구역량 향상으로 외국으로부터 국제공동연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,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은 극히 저조하고 매우 폐쇄적인 것으로 평가(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상황*)

* R&D 혁신기업 중 글로벌 기술협력 비중(OECD) : 한국(1.3%), 독일(8.4), 프랑스(15.8), 핀란드(27.5), 룩셈부르크(27.9), 영국(32.2), 벨기에(33.7)

- 중소·중견기업은 해외 기관에 대한 정보 부재, 교섭력 부족 등으로 **공동연구 파트너 발굴이 어려우며***,

* 기업의 국제공동연구 애로사항: 파트너 탐색 30%, 파트너에 대한 신뢰성 15.4%

- 이로 인하여 주로 자유공모형 과제에 의존하거나 해외기관 단순 위탁형 연구에 머물러 **R&D 기획·선정의 전략적 접근 및 방향성 부족**

- 또한, 외국기관과의 공동연구임에도 불구, 과제 선정 및 평가시 **국내 R&D 평가시스템을 그대로 적용**

○ 이에 국제공동연구 내실화를 통해 국제공동 R&D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은,

▷ 파트너 탐색 문제 해결을 위하여, **민간 중심 기술협력플랫폼*을 구축**하고 해외 글로벌기술협력거점**의 무역관 입주 및 R&D 출연기관(생기연 해외지사 등)과의 **협업체제를 구축**

* 중점협력국가별 공공硏, 업종별 협단체,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기술교류회 구성, 기술협력 수요가 많은 미국, 독일, 이스라엘, 중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 확대 검토

** 미국(워싱턴, 실리콘밸리), EU(벨기에), 이스라엘, 중국 등 5개 거점 운영 중

▷ **R&D 전략 차별화 및 투자의 효율성** 제고를 위하여, 국제공동연구를 대상국가에 따라 **기술습득형*(선진국)**과 **시장진출형**(신흥국)**으로 구분

* (기술습득형) 기술선진국(10개국) 대상 중대형 기획과제 중심
  - 참여 연구원의 장기인력교류(3개월 이상)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인건비 현금지원 신설 및 연구수당 지원 확대
  - (現)중소기업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→ (改)인건비 계상 대상을 국제공동연구 참여연구원(기존 인력) 1명도 계상가능으로 확대
  - (現)연구수당은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% 이상을 산정 → (改)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연구수당 15% 이상 산정

** (시장진출형) 주요 신흥국(5개국) 대상 우리 중소·중견기업의 현지 진출지원

- 이를 위해 산업부의 핵심 정책인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기술습득형으로 기획 또는 품목지정방식 자유공모를 통해 추진하고

* 국내 독자 기술개발이 어려운 강점기술(임베디드S/W, 시스템반도체 등) 보유국가와 공동R&D 추진

- 또한, 중점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보완적 협력 및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'13년 2개의 공동펀딩 R&D프로그램*을 '17년까지 10개로 확대하고 예산 투자비중을 20%에서 60%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임

* 국제공동R&D에 필요한 예산을 양국이 일정비율(예, 50:50, 60:40 등)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



▷ R&D 평가·수행에 외국계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, **국내기업과 외국계 대학/R&D센터와의 공동연구** 촉진을 위한 **전용 R&D 프로그램 신설** 및 과제기획·평가 등에 외국계 공대/교수 적극 활용

* 국내 이공계 외국인 교수는 약 920명, 외투 R&D센터는 1,200여개에 달하나 이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국내 R&D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

-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 내 '글로벌 융합트랙'을 신설하여 **외국대학**(FAU 등) **또는 외투 R&D 센터**('13.6, 1,229개)**를 1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**하게 하여 **외국계 인력과 국내 중소·중견기업과의 공동연구** 확대

-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전문가(교수, 연구원) D/B를 구축하여 R&D 과제기획에 최소한 1인이상 참여토록 하고, 선정평가 등 단계별 평가에 외국인 전문가 비율을 50%(7명 위원 중 3~4명)가 되도록 운영할 방침임

- 또한 과제제안서,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식, 관련 규정 및 사업 공고문 등을 한글/영문 모두 제공할 계획이며, **평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영어로 운영**

④ 창조경제 자문회의 4번째 안건으로 「**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* 활성화 방안**」에 대해서도 논의

* '기술개발-창업-사업화-성장' 등 기술혁신 全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기술력 중심의 평가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의미

○ 동 안건은 지난해 12월 발족한 '산업기술금융포럼'에서 산업계와 금융계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되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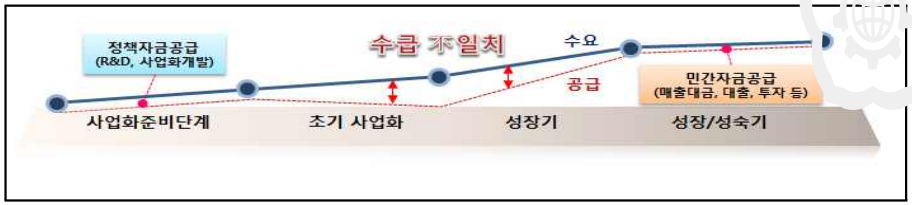
○ 그간 산업계 등에서는 기술금융의 주요 문제점으로 **기술금융 공급 기관의 보수적인 투·융자 관행** 등을 지적*해 왔음

*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재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관리보수와 기준수익률 위주의 안정적인 투자 추구로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제한적
- 은행권 융자 역시 담보나 보증 중심으로 진행되어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순수 신용대출은 매우 적은 수준

○ 이로 인해 기술집약형 기업들은 R&D 성공이후 제품화, 양산화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, **상당수 기술집약형 기업들이 사업화에 실패**하고 있는 실정

- 특히, 성장기 기업들은 시장 확대 과정에서 **제품판매시점과 자금 회수 시점 간의 괴리** 등에 따른 **자금수급 미스매치 심화**

【 기업 성장단계별 기업의 소요자본 규모 】




○ 同 지원방안의 **주요내용**은 **▲ 산업엔진 분야 등 기술집약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조성, ▲ 금융권의 기술기반 융자 확대, ▲ 투-융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** 등임

- (투자) **산업엔진 분야** 등 기술집약형 기업과 **초기 사업화·성장기**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**전용펀드 조성** 추진

* 구체적인 펀드 조성규모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은 추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별도 발표 예정



- (융자) 자금력이 취약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위해 산업부가 시범 운영중인 **사업화 전담은행**[1]과 **RCMS 금고은행**[2]**을 여타 R&D 수행부처로 확대** 추진

1) 산업부 R&D 전담기관 출연금('13년, 약 3조 3천억원)의 예치를 조건으로 **기술개발 성공기업**에 **여신우대와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은행**
- 동 제도를 통해 별도 정책자금 제공 없이 2개의 사업화전담은행(기업·우리은행)이 매년 **3,000억원 규모**의 저리융자(평균 2.0%p 내외 인하) 지원중

2) Real-time Cash Management System : 주관기관들의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정부자금과 민간 매칭자금을 관리하는 시스템

- (협력기반 조성) 산업계와 금융계간 정보비대칭 완화를 위해 '산업기술금융포럼' 등을 통해 **건전한 협력 여건을 조성**

- 이와 더불어, 기술평가모델 다양화, 품질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**기술평가의 신뢰도 제고**

- 또한, **기술혁신 평가관리지침**을 금년 중에 **개정**하여, **대출형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일반 부채와 동일시 처리**되어 **정부 R&D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***

* 부채비율 계산 시 최근 2년 동안 VC의 대출형 투자유치로 인한 신규자입금의 경우 부채총액에서 제외하여 산정

○ 산업부는 금일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대책에 적극 반영하고, 향후 **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확정**할 예정임

□ 윤상직 장관은 "2013년은 산업부문의 창조경제 확대를 위한 기본틀을 구상·정립하였으며, **금년에는 시장 확대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할 것**이라고 설명

○ 무엇보다도 창조경제는 과거와 같은 정부의 주도적 역할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, **정부는 민간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**해 나갈 것이며,

- **인력, 자금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**은 물론, **시장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**에 초점을 둘 계획"이라고 밝힘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김태희 사무관(☎ 044-203-4365), 산업기술개발과 오종희 사무관(☎ 044-203-4523), 최정식 사무관(☎ 044-203-4524), 산업기술시장과 강규형 사무관(☎ 044-203-45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참 고 1 제3차 창의산업 정책자문회의 개요

### □ 추진 배경

○ 산업부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산업·에너지분야 창조경제 관련 주요 정책 자문을 위한 「창의산업 정책자문단」 구성 및 위촉(7.12)

* 주요 역할 : ①창조경제 관련 정책방향 등 자문, ②주요 정책 확정前 민간 차원 심의·조정, ③對국민 홍보 및 산업현장의 분위기 확산 등

### □ 제3차* 창의산업 정책자문단회의 개요 및 안건

* 1차('13.7), 2차('13.10)

○ 일시·장소 : '14.3.24(月) 11:00~12:30,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(코랄룸)

○ 참석자 : 장관(주재), 산업기반실장, 창의산업정책 자문위원(15명) 등

○ 논의안건(안)

① 산업부문 창조경제 성과 평가 및 향후 계획

②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 계획

③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

④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

### □ 세부일정

| 일 시 | | 주요 내용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11:00 ~ 11:05 | (5분) | 인사 말씀 | 장관 |
| 11:05 ~ 12:25 | (20분) | · 안건 발표(각 5분) | 담당 과장 |
| | (60분) | · 토론 및 자문 | - |
| 12:25 ~ 12:30 | (5분) | 마무리 말씀 | 장관 |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## 참 고 2 「창의산업 정책자문단」 명단

◈ 자문위원 및 특별자문위원 등 총 20명

- (자문 위원 17인) 창업벤처(4), 창의산업(4), 산업융합(4), 경영혁신(3), 창의인재(1), 과학기술(1)
- (특별 자문위원 3인) 안건을 고려하여, 전략기획투자(1) 및 기술금융(2) 관련 위원 추가

**<자문 위원>**

| 구 분 | 사진 | 성명/소속직위 | 주요 학·경력 |
|---|---|---|---|
| **창업벤처** (IT SW) |  | 조현정 (56세)<br>(주)비트컴퓨터 회장 | ○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<br>○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<br>○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/이사<br>○코스닥협회 부회장 |
| (벤처기업) |  | 장흥순 (53세)<br>서강미래기술원 원장 | ○서강대학교 전자공학 학사<br>○KAIST 전기전자공학 석·박사<br>○터보테크 대표이사 회장<br>○벤처기업협회 회장 |
| (전자) |  | 정준 (50세)<br>쏠리드 대표이사 | ○스탠퍼드대학교 전자공학 석·박사<br>○벤처기업협회 부회장<br>○코스닥협회 이사<br>※ 세계경제포럼 New Asian Leaders 선정('04) |
| (바이오) |  | 김수옥 (53세)<br>에치비아이 대표이사 | ○연세대학교 생물학 학·석사<br>○텍사스대학교 분자유전학 박사<br>○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<br>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 위원 |
| **창의산업** (SoC) |  | 허염 (61세)<br>실리콘마이터스 대표이사 | ○서울대 전자, 스탠퍼드대 전자공학 박사<br>○하이닉스반도체 부사장<br>○매그나칩반도체 대표이사 |
| (엔지니어링, 서비스 디자인) |  | 김용세 (53세)<br>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 교수 | ○서울대학교 기계공학 학사<br>○스탠퍼드대학교 기계공학 석·박사<br>○위스콘신대학교 부교수<br>○성균관대학교 창의적설계연구소 소장 |



| 구 분 | 사진 | 성명/소속직위 | 주요 학·경력 |
|---|---|---|---|
| (엔지니어링) |  | 신익기 (52세)<br>(주)에젤 대표이사 | ○한양대학교 화학공학 학사<br>○삼성엔지니어링, SK건설 등 근무<br>○(주)에젤 대표이사 |
| (디자인 컨설팅) |  | 다니엘 김 (42세)<br>데이라이트 디자인 아시아 대표 | ○스탠퍼드대학교 기계공학 학사, 제품디자인 석사<br>○美 IDEO 디자이너<br>○넥슨 아메리카 대표 |
| **산업융합** (통섭) |  | 최재천 (59세)<br>이화여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 | ○서울대학교 동물학 학사<br>○하버드대학교 생물학 석·박사<br>○사회통합위원회 민간위원<br>※ 저서 : '지식의 통섭'('07), '통섭의 식탁' ('11), '통섭적 인생의 권유'('13) |
| (농업융합) |  | 민승규 (52세)<br>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| ○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농수산비서관<br>○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<br>○제23대 농촌진흥청 청장<br>※ 저서: '벤처농업 미래가 보인다'('03) |
| (전력경제) |  | 손양훈 (55세)<br>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| ○연세대학교, 플로리다대 경제학 박사<br>○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 팀장<br>○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<br>○전기위원회 위원 |
| (에너지 융합) |  | 허은녕 (49세)<br>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 | ○서울대 자원공학 학·석사<br>○펜실베니아주립대 자원경제학 박사<br>○한국자원경제학회 편집위원장<br>○에너지위원회 위원 |
| **경영혁신** (경영인재) |  | 강신장 (55세)<br>세계경영연구원 원장 | ○한양대 경영학, 성균관대 경영학 박사<br>○카네기멜론대학교 E-BIZ과정 수료<br>○삼성경제연구소 지식경영실장 전무<br>○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정책 자문위원 |
| (기술경영) |  | 곽재원 (59세)<br>한양대학교 기술경영학 석좌교수 | ○서울대학교 금속주조공학 학·석사<br>○도쿄대학교 공학 박사<br>○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<br>○공학한림원 기술경영정책분과 위원 |
| (지식경영) |  | 김효근 (53세)<br>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| ○서울대학교 경제학 학·석사<br>○피츠버그대학교 경영학 박사<br>○ISO JCT1/SC36 한국위원<br>○한국지식경영학회 회장 |

| 구 분 | 사진 | 성명/소속직위 | 주요 학·경력 |
|---|---|---|---|
| 창의인재 |  | 육동인 (51세)<br>커리어케어<br>대표이사 | ○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<br>○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논설위원<br>○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<br>※ 저서: '유대인처럼 성공하라'('04) |
| 과학기술 |  | 이레나 (45세)<br>이화여대<br>의과대<br>부교수 | ○강원대 물리학 학사<br>○매사추세츠공대 원자핵공학 석·박사<br>○한국의학물리학회 교육이사<br>※ 제12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('12) |

**<특별 자문위원>**

| 구 분 | 사진 | 성명/소속직위 | 주요 학·경력 |
|---|---|---|---|
| 전략<br>기획<br>투자 |  | 김우승 (56세)<br>한양대학교<br>기계공학과<br>교수 | ○ 한국산학협력학회 회장<br>○ 한양대 산학협력단 단장<br>○ 한양대 기계공학과 교수 |
| 기술금융<br>(투자금융) |  | 최병원 (55세)<br>(주)스틱인베스트 | ○ 서울대학교 잠사학 학사<br>○ 경북대학교 경영학 석사<br>○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|
| (은행금융) |  | 이순우 (64세)<br>우리은행 | ○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<br>○ 우리금융지주 회장<br>○ 우리은행 은행장 |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